

‘아쉽지만, 그래도 잘해줬다’



22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대한민국-쿠바의 15~16위 순위결정전 경기, 한국이 30-0으로 패했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 전북서 일일 지도

아테네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하태권 감독·신소정 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등 대한체육회 주관 ‘스타 서포터즈 초청 강습회’ 참여 교육·질의 응답·경기 참여 등 나서

한국 체육을 빛낸 스타들이 전북에서 일일 지도자로 나섰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04년 아테네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하태권 감독(현 요넥스 배드민턴팀 감독)과 신소정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최근 전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스타 서포터즈 초청 강습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태권 감독은 전주비전스포츠클럽에서 클럽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종목의 기초부터 1대1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 배드민턴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직접 회원들과 함께 경기에도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출전했던 신소정은 전북스포츠클럽에서 강습회를 열었다.

이날 신소정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을 비롯해 원포인트 강의를 진행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비전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스포츠클럽 붐 조성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출전했던 신소정이 전북스포츠클럽에서 강습회를 가졌다.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스타서포터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우리 클럽의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체육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스포츠클럽 관계자도 “이번 강습회의 반응이 너무 뜨겁다”며 “내년에도 종목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붐 조성 및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 서포터즈는 국가대표 출신 메달리스트, 운동 지도가 가능한 연예인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다시 한번 ‘전국 최강’ 우뚝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전국대회 개인·단체전 금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감독 김호엽)이 지난 19~21일까지 경북 문경 체육부대에서 개최된 제36회 하계 회장 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며 전국 최우수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은 20일 단체전 7.5km (최두진, 이수영, 이준복 출전) 결승에서 1위, 개인 10km 스프린트 결승에서는 최두진 선수가 31분 12초 기록으로 1위, 이수영 선수는 31분 38초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21일 추적12.5km 결승에서는 이수영, 최두진 선수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은 2018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35회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

이수영, 최두진, 이준복(사진 왼쪽부터)

에서도 바이애슬론 전국최강임을 뽐냈다.

현재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은 김호엽 감독 하에 2011년에 창단되어 이수영(국가대표), 김용규(국가대표), 최두진(국가대표), 이준복(국가대표), 최창환 등 5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국내·외 대회에서 동계스포츠 바이애슬론 절대강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김호엽 감독은 “이번 대회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동계대회에서도 끊임없는 땀과 노력으로 선수들과 함께 무주군의 위상을 높여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주는 열정을 가진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국장 내정

익산시체육회 주유선·장애인체육회 왕경배

익산시는 그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공식이던 체육회 사무국장 주유선(63) 전 익산시의회 의원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왕경배(55) 익산시축구협회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유선 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는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시의원으로 탁월한 행정·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 내정자는 행정·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시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예산확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왕경배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는 현 익산시축구협회장으로 온화한 성품과 추진력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왕 내정자는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



주유선



왕경배

으며, 장애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익산시 장애인 체육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체육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은 “양 체육회 당면문제 해결과 급변하는 체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회 조직의 혁신을 주도할 적임자를 결정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두 내정자는 시체육회 이사회 및 시장인 체육회 이사회의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신임 체육회사무국장의 임기는 체육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2월까지이며,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의 임기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2022년 6월까지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